

‘기업 맞춤형 주문식 교육의 산실’ 대구 영진전문대학교



1 영진전문대학교가 개최한 2020 해외취업박람회에서 일본 취업에 나서는 졸업생들과 최재영 총장(오른쪽 네번째)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2 SK하이닉스협약반 학생들이 대학 내 반도체공정기술센터에서 실습에 참여하고 있다. 3 영진전문대학교 복현캠퍼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취업시장에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일취월장한 취업 성적을 내는 대학이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구 영진전문대학교(총장 최재영)가 그 주인공이다.

영진전문대의 기업 맞춤형 주문식 교육은 이미 국내 많은 기업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고, 최근에는 해외 기업으로부터 인력 채용에 대한 러브콜을 연이어 받고 있다.

2020년 교육부 공시에 따르면 이 대학교 취업률은 81.3%(2018년 졸업자)를 기록했다. 해외 취업은 국내 전문대 최초로 100명 선을 돌파한 157명을 달성했다.

최근 이 대학교에는 고교 졸업 후 사회생활을 하다 전문성을 높여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한 입학생인 일명 사회적 유(U)턴이 증가하고 있다. 올해 고졸 사회적 유턴은 771명으로 전체 입학자 2천631명 가운데 30%에 육박한다. 이는 지난해 사회적 유턴 입학자 568명보다 203명이 증가한 것이다.

이대섭 입학지원처장(컴퓨터응용기계계열 교수)은 “우리 대학은

기업 맞춤형 주문식 교육으로 최근 4년간 평균 취업률이 80.6%로 전국 최고 경쟁력을 자랑한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특히 일부 이공계 학과의 경우 대기업은 물론 일본 소프트뱅크, 라쿠텐, 야후재팬 등 해외 기업에 최근 5년간(2016~2020년) 742명이 입사했다면서 “고교 출신 사회인들이 이런 점을 주목하고 재입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대졸 유턴자도 올해 수시모집에서 400여 명에 달한다.

최재영 총장은 “기업 눈높이에 맞춘 주문식 교육을 받은 우리 졸업생을 국내의 기업에서 잘 받아 준 것에 감사드린다”면서 “융합과 다양성이 요구되는 시대인 만큼 대학 모든 구성원이 성심(誠心)을 다해서 ‘최고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데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영진전문대학교는 2021학년도 정시모집을 내년 1월 7일부터 18일까지 한다. ☎ 입학문의 053)940-5551~5554. 자세한 사항은 대학 홈페이지(www.yju.ac.kr) 참조 ▼

